

교회 목표

- 1. 천국일꾼을 키우자
-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관 중 헌

발행인 : 신 성 중
편집인 : 윤 명 식
편집국장 : 손 경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중 헌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300 FAX : 563-3932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하나님의 공의 실현 위해 적극적인 기도를!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의 남북 통일로 함께

우리 교회가 일년 동안 기도해 왔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대통령)가 되게 하옵소서”의 결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제 한국 교회는 중요한 결단의 시기가 왔다.

도덕과 양심이 땅에 떨어지고, 사신 우상이 사회를 지배하려는 위기와 크리스찬들이 주일 성수

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무교회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개척 교회의 임대 형편에 정부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교회 설립이 주춤거리고 있다. 모든 국가 행사 전에는 “고사”라는 제사가 앞서 있고, 미신 행위와 비기독교적인 잡신들이 활개를 쳐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것이 오늘의 사회 현실이다

우리 믿는 자는 힘을 합쳐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뜨

겁게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마귀)의 장난도 함께 한다. 교회 안에 침투되고 있는 포도원의 냉권을 허는 여우를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 복음화와, 남북 통일의 성취를 위하여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눈치볼 것 없이 공의에 합당한 인물에게 우리의 의지를 집약시키고 그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토록 전폭적인 기도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93년도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 임명 오늘 낮 예배 시간과 16일에

지난 12월 6일 93년도 서리집사 및 구역권찰 임명이 있었던 데 이어 오늘(13일) 낮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 임명이 있다.

오늘 임명되는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원은 성경연구원이 주

관하는 교사양성부나 찬양대원양성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았는데, 9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교회학교 교사 중 영아부에서 고등부의 교사들은 4부예배시에,

기타 교회학교 교사들은 3부예배시에 임명되며, 찬양대원들은 1, 2, 3, 4부예배시에, 시온찬양대, 크로마하프, 만도린은 4부예배시에, 호산나찬양대는 16일 수요일 1부예배시에, 실로암찬양대는 수요일 2부예배시에 각각 임명된다.

중헌프리즘

⊙...오는 20일에 있을 대학입시를 앞두고 우리 교회는 입시생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대학입시생들(고3 학생 및 재수생 포함)은 약 1천 5백명 정도 된다는 잠정 집계 있다. 이들이 대학입시를 앞두고 경건된 자세로 기도회를 갖는 일은 공부에 억압된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고, 새로운 용기, 두려움 없는 자세, 그리고 시험 당일 그 동안 배

워왔고, 공부했던 모든 과목들에 대한 시험 답안지를 작성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야 한다.

시험공부에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기쁨도 곁들여 줄 것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13일 주일 찬양예배 후의 특별기도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자.

⊙...요즈음 후보 페이지가 2면이나 늘

었다. 그 동안 6면으로 발행했던 후보가 8면으로 증면된 것은 새가족(등록교인)들이 너무 많아 명단 게재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92 예수 사랑 큰 잔치 이후 매 주일 1백명 이상의 새신자가 등록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큰 기쁨이 아니며, 하나님께 칭찬들을 만한 진도의 열매이다. 교인 숫자가 양적으로 팽창되어가는 중헌교회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져 지역 사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고, 세

계 선교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때이다.

⊙...먹지 못해 하루에 수만명이 죽어가는 소말리아의 참상을 뉴스에서 접하면서 가슴이 아프다. TV 화면에 비친 앙상한 형태의 인간 물결은 시청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유성이 밧발치게 들려온다. 혈벗고 굶주린 소말리아인들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교회가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다. 관계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카메라 초점



▲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학술원이 주최한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 강의하는 당회장 신성중 목사

성경연구원 수료식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성경연구원이 오늘(13일) 찬양 예배 시간에 수료식을 가진 것으로 92년도 제2학기의 모든 일정을 마친다.

지난 9월 5일에 개강한 성경연구원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주간성경공부 및 크로스웨이반을 통하여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깊이 있게 실시

해왔다.

이번 학기에는 교사양성부에서 106명, 찬양대원양성부에서 40명이 수료하였고, 주간성경공부 및 크로스웨이반에서 361명이 이수하여 모두 507명이 수료 및 이수하였고, 이들 가운데 112명이 개근하였다.

초등4부

제2회 가족 사진전 열어

초등4부는 12월 13일부터 27일까지 교육관 1층 복도에서 제2회 가족 사진전을 갖는다.

초등4부는 학생들과 부장 장로인 오태희 장로와 지도인 장상기 강도사를 비롯한 73명의 교사들은 1992년을 은혜로 인도해주시고, 특히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 많은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사진전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으며, 역대 부장이었던 하대선 장로의 카메라 선물 등 많은 교사들이 상품을 기증하였다.

초등4부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진전을 관람하고 심사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교구별 새가족 환영 및 친교회

각 교구에서는 연말을 맞아 전체 가족과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오셔서 등록하신 새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환영과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 제10교구

- 일시: 12월 17일 오후 6시
- 장소: 메추라기홀

◆ 제13교구

- 일시: 12월 15일 오후 7시
- 장소: 만나홀, 교육관 107호

◆ 제14교구

- 일시: 12월 17일 오후 7시
- 장소: 만나홀

◆ 제16교구

- 일시: 12월 15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메추라기홀

직 원 모 집

중헌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청지기적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 봉사할 직원을 다음과같이 모집합니다.

- 직종 : 사서직
- 자격 : 세례교인으로서 사서직 유경험자(기혼자도 가능)
- 제출서류 : 이력서, 담당교구 교역자 추천서(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사서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 제출처 : 사무국 총무과 · 기한 : 12월 20일



중헌강단

신성종 목사

금식에 대하여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마9:14~17)

1. 서론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무조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란 반드시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이 우리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본문에는 예수님께 금식에 대하여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가르쳐주고 또 바리새인들도 일정 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 금식의 경우

성경에 보면 여러 경우에 금식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첫번째 예로, 법궤를 빼앗겼을 경우에 금식을 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법궤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들을 떠났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빼앗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법궤를 블레셋군에게 빼앗겼다는 말을 들은 엘리 선지자는 그만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마침내 이 법궤는 블레셋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그리로 옮겨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는 수 없이 저들은 벤세메스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랴타림으로 법궤가 옮겨졌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성회를 베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들이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구약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느헤미야 1장 4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그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빼앗겼을 때에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생명을 내걸고 하는 금식 기도만이 국난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이방인 중에서는 최초로 예수님을 믿게 된 고넬료는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벽을 느끼고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이방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번째로 안디옥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정해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놓고도 금식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선교사는 혼자 고전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실패를 하고 맙니다.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을 금식 기도를 통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할 때,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교회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금식의 목적

첫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둘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려 할 때에 금식을 합니다.

셋째는, 더 큰 능력과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과 믿음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4. 금식할 때 주의점

첫째는, 신앙을 과시하는 행위로서의 금식 기도입니다.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적으로 금식을 해서는 안됩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면서 배움을 입고 제를 뿌리는 심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겸손과 회개의 상징

왕 아합의 금식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은 부인 때문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부인 이세벨은 바알숭배에 제일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본래가 마안온 숭배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런 이세벨의 충동질에 의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왕상21:26)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니 그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겸비하다는 말은 자신을 낮춘다는 말인데 겸비중에 최고의 겸비는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금식 기도는 그에게 임해야 할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류시키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죄를 짓고 나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금식 기도입니다.

5. 예수님 당시의 금식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금식하는 것을 많이 따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매뚜기와 식청을 먹었습니다. 음식도 가장 소박한 음식을 먹었고, 옷도 몸을 가릴 정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번씩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그들은 그때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속죄일이 될 때에는 일년에 한 번씩 누구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말하자면 민족적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비판했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

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마9:15)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1주일에 두 번씩 금식 기도를 했지만 결혼식이 있을 때는 모든 법에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는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자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먹는 것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금식 기간이라고 해도 결혼예식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금식을 하게 되면 결혼예식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예식이 금식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관례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생(生)베조각과 새 가죽부대를 예로 들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생베 조각을 낚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니라”(마9:16, 17)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낚은 가죽 부대와 같은 유교적, 불교적, 세속적인 삶의 형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6. 결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은 항상 기쁨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일을 축제와같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물론 통회자복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치 결혼예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만나서 나누지 못했던 교제를 나누면서 온 교회가 매주 축제를 벌이는 것과 같이 지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그리워 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결혼예식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새 예복이 필요합니다. 그 예복은 흰 세마포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흰 세마포옷을 입을 때에 찬구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새 예복과 함께 새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이 사회는 구조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조악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1992년 올해도 선교관 4층 세계선교위원회실은 총현교회 선교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으며 선교적 도약을 위한 내실을 다지느라 분주하게 움직인 한 해였다. 많은 선교적 아이템들이 논의되었고 그 중 얼마는 어떤 매듭과 열매를 보기도 하였고 혹은 1993년의 캐비닛으로 옮겨지기도 하였다.

1. '92년의 선교 방향

지난 2월 25일에 있었던 우리 교회 선교연구원 강사진의 간담회에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은 선교의 기본 정책을 다음과같이 밝혀주셨다.

"선교의 대상 지역과 선교사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선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보다 선교할 지역을 정책적으로 선정하되,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곳을 따른다. 특히 마지막 선교지의 하나인 북한 선교의 여망이 보이고 있는 이때에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이를 발전적으로 진전시킨다. 나아가 종교적 제국주의(Religious Imperialism)나 교파 수출을 지양하고 피선교국이 스스로 자국을 복음화하도록 도와주는 선교가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선교 방침 하에서 세계선교위원회는 이의 구현을 위해서 그 준비 및 사업 실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위원회의 다른 굵직한 연간 사업들과 함께 일을 병행해오면서 추진 속도가 잘 붙지 않았다.

또한 지난 몇 년간의 선교 방향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들여졌다.

앞으로 계속적인 선교사 신규 파송을 위해 이를 위한 원칙과 정책의 정비 등 필요한 준비도 계속되어 왔다.

2. '92년의 사업 보고

선교위원회가 하는 주업무는 ① 파송된 선교사들을 영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들과 선교적 교신을 유지하며 그들의 출입 사항을 관장하는 일, ② 위원회 내 모든 위원들의 결속을 도모하고 각 부분별 회의와 기도회를 주관하는 일, ③ 연간 사업 계획을 따라 기정 사업과 행사들을 추진하는 일, ④ 인종 수시로 접수되는 각종 선교 지원 사항을 논의, 협조하는 일, ⑤ 선교사를 신규로 파송하거나 그 준비와 훈련에 관한 일, 그리고 ⑥ 선교연구원의 학사를 운영하는 일 등이다.

이에 준하여 92년에 진행되어 왔던 위원회의 주된 사업들 다음과 같이 10가지 정도로 결산해본다.

(1) 세계선교보고회

서만수, 이준교, 김주경 선교사가 귀국하여 지난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간 동안 본당에서 많은 총현의 성도들에게 세 나라 선교를 중심한 진지한 선교보고회를 가졌다.

다.

당회장 목사님도 미국 선교일정 후 같이 합류하셔서 현지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으며, 참가한 23명의 방문단이 일반 여행과는 다른 귀한 선교적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왔다.

(4) 일본 선교 방문

지난 8월 19일부터 한 주간 "한·일 교회 교류 일본 선교 방문"이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북한 선교의 역량을 신중히 재검집하여 뜨거운 선교적 열기와 함께 주변 상황과 선교방법론적인 냉철한 검토를 진전시키면서 준비하여 왔다.

이를 위한 교회내의 제도적 정비뿐 아니라 북한에의 간접 선교와 그 후원을 위한 연구와 모임도 진행되고 있다.

(6) 선교세미나

(8) 세계선교연구원의 지속적 운영

올해 제1기생들을 수료시키고 수료생 중 몇 명은 평신도 해외선교사역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제2기 교육이 진행중이다.

(9) 위원회 업무 및 기구 내 실행

과다한 선교 업무로 인해 전담 간사 청원이 허락을 받아 간사가 본부를 지키며 지속적인 업무 추진에 힘쓸 수 있게 된 것은 총현교회 선교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되었다.

아울러 산만했던 선교 관계 자료 및 각종 문서 운용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10) 각종 지원 업무

중국의 시타교회에 봉고차 지원, 이스라엘 선교지에 선교 차량 대금 지원, 파키스탄 의료선교팀 선교 장비 지원, 선교사 해외선교회의 및 훈련 참가 지원, 선교사 선교지 및 본국 입출국 지원, 외국 교회 및 선교단체의 우리 교회 탐방 안내 및 간담회 진행, LA 총현선교교회와의 형제교회 결연 지원 등의 일시 혹은 지속적 지원 사업이 있었다.

3. '93년도를 위한 전망

첫째, 기존 선교사에 대한 지원을 명실상부 강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총현의 선교회원 조직이 더 확대, 강화되고 교회적인 기도협력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난 8월 13일 당회장, 선교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로서 교회적 배가운동에 맞추어 선교사 배가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다.

셋째, 내년에 신설될 북한선교관에 북한 선교의 새로운 활력과 추진을 기대해본다.

넷째, 2000년대를 향한 중장기 선교 비전을 따라 '93년도 사업 계획에 수립된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이다. 그 중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 세계 선교의 불을 조성하는 일, 한일기독교청년대회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일 등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여 완벽한 사업 추진을 통해 해외의 공동체들과 선교적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교적 대전제 하에 전 세계의 모든 미전도 족속들(Unreached Peoples)에게 복음을 활발히 전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이 마련되는 새해를 기대해본다.

▶ 기획시리즈4 ◀

'92 세계 선교 결산 도약을 위한 내실을 다진 세계 선교

김창수 목사(세계선교위원회 지도)



1. 오늘도 선교사들은 세계 각 곳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다.
2. 북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킨 북한선교세미나
3. 선교지 일본을 방문하면서 선교의 열매를 직접 확인하였다.

방문을 통해서 세계선교위원회 및 남아시아권 임원들은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될 "제2회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대회"를 위해 사전 답사와 실무준비회의를 진행하였고, 한편 선교연구원생들이 중심된 연수방문단은 같이 여행하며 일본의 개교회 및 교단들과 선교적 교류를 나누었다.

방문을 통해서 본 교회와 일본의 복음동맹교단 및 복음자유교단과 영적 교류의 다리가 놓인 것은 참으로 귀한 성과의 하나였다.

(5) 북한 선교를 위한 노력

(2) 일부 지역 지원 종료

우리 교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 공동 파송으로 파키스탄에서 사역해온 의료선교팀에 대한 지원이 계약 만료와 더불어 종료되었다.

또한 일본에서 사역중인 구리하라 선교사에 대한 지원도 함께 종료되었다.

(3) 인도네시아 선교 방문

지난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교회적인 선교 방문단이 조직되어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돌아본 획기적인 선교 탐방이 실시되었

독자의 글

땅끝 - 종점

손동운 장로(교구위원장)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 민족이지만, 우상 숭배와 최악의 어두운 권세 아래 억눌려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던 우리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2천년 전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아주셨다. 뿐 아니라 백여년 전 이 땅에도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수 많은 순교자들의 흘린 피와 선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거름을 주시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적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커다란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심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2천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한 기나긴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럽에 전파했으며, 유럽의 각 나라들은 이를 다시 미국에 전파했으며, 미국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복음을 또 다시 아시아와 한국에 전파했으며, 한국은 이제 마지막 주자로서 땅 끝(종점)까지 달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명 세상에 종점까지 달려야 하는 마지막 주자 한국 교회의 사명은 너무나 막중한 것이다.

이 등근 지구촌에 과연 땅 끝은 어디에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에서 당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에 우리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을 뿐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 그 곳이 바로 땅 끝인 것이다. 북한을 비롯하여 회교권과 불교권, 그리고 비록 복음의 첫 번째 주자였으나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까지도 땅 끝임에는 분명하리라. 릴레이 경주는 출발점이 바로 종점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이며 이스라엘의 완전 회복이 될 것이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은 이것을 예언하심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나라의 민족 복음화를 속히 이루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룩하는 것에서 땅 끝까지의 복음 전파를 이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청와대를 먼저 복음화 시키는 것이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깨끗하고 충성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비록 이러한 조건에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여기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사회가 오늘에 이른 것은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실시해온 성경 공부를 폐지한 데에 기인했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나라의 삼십만 성도가 해방 후 크게 확장된 것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60만 대군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군 목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황금 여장에 그물을 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후 30년간 군승제도와 더불어 불교의 성장 여건이 조성되었으니 앞에서 거론된 몇 가지 예만 보아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큰가는 가히 짐작할 만하다.

그러므로 이번의 선거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민족 복음화 차원에서 신중히 생각하여 선택하여야 할 줄 안다.

복음화된 통일 조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막강한 국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명실공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 때야 끝이 오리라" 한렐루야 아멘.

중헌조기교육원 교사 모집

- 직종 : 특수교사, 유아교사, 보육교사, 체육교사
- 자격 : 특수교사, 유아교사, 체육교사는 4년제 대학 전공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기한 : 12월 17일

● 구역예배 ● '92 예수사랑큰잔치 양육특별공과

(1992. 12. 18)

제6주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

· 본문 : 마태복음 5장 13-16절 · 찬송 : 259장, 255장

· 요절 :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걸고 있으면 안됩니다. 증거와 전도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얻은 영적 생명력을 사용하는 영혼의 적절한 운동이 됩니다.

1.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의 삶

(1)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권능을 약속하시면서 어떤 신분을 명하셨습니다?
(행1:8)

· '증거'라는 말은 법정적인 말로서 진실과 진리를 사실대로 나타내어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참 생명에 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진리를 증거할 의무를 가집니다(시107:2).

(2) 본문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리워진 우리들은 어떤 삶으로 증거하여야 할까요?

· 소금(마5:13)

· 빛(마5:14~16)

· 여기서 '빛과 소금'이란 부패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맛과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증거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표현인데, 이는 성도만이 말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2.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

(1) 우리들이 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전도는 주 예수님의 명령이며(마16:15), 불신의 상태란 너무도 위험하고 불쌍하며(마9:35, 36). 또 그리스도의 ()이 전도를 강권하기 때문입니

다(고후5:14).

· 요나스 살크 박사는 소아마비 학진을 최종적으로 개발한 의사입니다. 만일 그가 개발한 소식을 발표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지 상상해보십시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만일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고전9:16).

(2) 우리들은 복음을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으로 증거하여야 합니다(살전1:5).

· 믿는 우리들이 전할 메시지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요일4:16). 둘째는, 죄의 사실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롬3:23). 셋째는, 은혜의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들과 화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벧전3:18). 넷째는, 구원의 사실인데,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요5:24).

3. 증인의 헌신된 생활

(1) 유능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들은 기본적인 영적 생활에 늘 충실하여야 합니다. 이 양육공과의 '확신, 성장, 말씀, 기도, 교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철저히 실천하십시오.

(2)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 '사람을 낚는 능력'은 우리들의 인간적 지혜나 매력보다 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된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매일 순교하는 자세로 성결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들이 영혼을 구할 영적 어부가 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 적용

(1) 주위의 잃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실제로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도록 의지하고 간구하십시오.

(2)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들이 믿는 주님을 나타내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실이 주위에 얼마나 알려졌는가?"